



## 30주년 기념호 발간사

김 정 안

한국고분자학회 전무이사

2006년 30주년 기념의 해를 운영해 갈 우리 학회의 새로운 집행부가 2005년 9월에 결정되었다. 2006년 학회 전무이사로서 당연직 고분자과학기술지 편집위원장으로 활동이 2006년 1월부터 시작되어 사실 걱정이 앞섰다.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움을 학회 정기 추계총회와 맞물려 진행하기로 2005년 결성된 국제심포지움 조직위원회와 학회 운영진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국제심포지움 개최로 30주년을 축하했다고 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움이 남았다. 다행히도 학회장이신 김봉식 교수께서 타 학회에서도 통상 기념 특집호가 마련되며, 또한 우리 학회 20주년 기념사업으로도 고분자 과학과 기술지 특집호가 마련되었다며 30주년 특집호를 기획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이 있었다. 전무이사 및 편집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특집호를 꾸며야한다는 사명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하여 30주년 기념 특집호 발간이 결정되었다.

학회 창립 30주년! 청소년기와 성년기를 지나 이제 장년기로 들어서는 학회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인간에 비유하면 장년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무한책임을 느끼는 세대를 일컫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학회 30주년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특집호는 세계 및 국내 관련 학회장님들로부터 축하 메시지, 학회장을 역임하신 분들의 회고록, 고분자 학술분야의 총설, 및 각종 유익한 데이터들로 내용을 꾸미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특집호 편집진들이 열심히 노력하였다. 유익한 내용들로 이루어진 본 특집호가 오래도록 학회 회원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본 특집호가 성공적으로 발간되는데 협조하여 주신 외국 관련학회 유명 인사들과 본 학회 전임 회장님들 그리고 본 특집호에 발간에 아낌없이 참여해 주신 투고자 여러분과 특집호를 꾸미는데 바쁜 시간에도 참여를 허락하여 쓸모있게 꾸미려고 노력하신 송실대 허완수 교수님, 금오공과대 조동환 교수님, 그리고 한국화학연구원 이성구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다.